



◇ 準産油國대열에 진입

88년 1월 20일 北예멘 마리브광구에서 한국기업이 자본참여하여 개발한 原油가 첫 입항하였다. 이번에 도입한 1차 선적분은 마리브油田이 본격가동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생산된 물량중 韓國참여 지분에 해당되는 최초의 배당물량이다.

마리브 油田의 개발효과

이러한 마리브油田의 개발성공은 향후 2010년까지 연평균 3.9%의 지속적인 石油소비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가 준산유국의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이번 마리브油田의 개발성공은 그동안 한국기업이 진출한 인도네시아의 西마두라, 아당 및 나우카 광구와 수단, 나일 및 동골라 광구에서 경제성 있는 石油개발 실패를 보완한 것으로 韓國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진출의욕을 북돋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또한 의의가 있다.

〈表 - 1〉 국내 石油수요 전망

(단위 : 백만배럴)

	計	산 업	수 송	가정· 상 업	공공· 기 타	발전
1986	200.6	77.4	54.7	28.9	19.3	20.3
1991	271.3	101.6	81.2	48.1	21.3	19.2
1996	249.3	113.7	111.7	67.9	25.6	30.5
2001	414.5	138.9	140.1	90.2	30.6	14.6
2010	506.8	176.3	187.0	98.6	37.0	7.9
증가율(%)						
• 86-1991	6.2	5.6	8.2	10.7	2.0	-1.2
• 86-2010	3.9	3.5	5.3	5.2	2.8	-3.9

〈資料〉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의 에너지 미래」, 1987

◇ 마리브油田의 현황

마리브油田에 대한 韓國기업의 진출은 美國 헛트社의

〈表 - 2〉 해외油田개발 진출내용

	광 구	진 출 회 사	공동개발외국회사	참여지분	실 적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코데코, 석유개발공사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	50%	제 1 油田 생산개시 (경제성 회박)
	아 당	럭키금성, 석유개발공사	美國 모빌의 2 개사	15%	경제성 있는 유전발견 실패 (2 개공시추)
	나 우 카	경인에너지, 대우, 석유개발공사	美國 코노코의 5 개사	15%	유정발견 실패 (1 개공시추)
北 예 멘	마 리 브	유공, 삼환기업, 현대 종합상사, 석유개발공사	美國 헌트, 엑슨사	24.5%	알리프유전 생산개시
수 단	나일 및 동골라	유공	美國 선외의 2 개사	14.5%	유정발견 실패 (3 개공시추)

〈資料〉 매일경제 (88. 1. 20)

항공탐사와 탄성파탐사로 대규모유전이 발견된 1984년 가을 韓國의 油公, 삼환기업, 현대종합상사 및 석유개발공사가 총지분의 24.5%를 인수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85년말 마리브油田의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명되자, 石油메이저의 기술지원 및 막대한 개발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헌트사는 마리브油田의 자기지분 49%를 엑슨사에 매각하게 되어 마리브油田개발에 참여한 회사는 한국측 4개사를 포함하여 총 6개사가 되었다.

마리브油田에 매장된 원유량은 총 15억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라비안라이트를 능가하는 양질의 石油로서 유황성분이 적어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경질 석유제품의 수요충족은 물론 공해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부산물로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5조^{f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밖에 개발된 마리브油田의 알리프지역외에도 주변지역인 알자와프지역에도 약 10억배럴의 原油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광구전체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생산을 하고있는 알리프油田의 하루생산량이 15만배럴 수준이나 내년부터는 20만배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90년대에는 하루 생산량이 4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루 20만배럴 생산물량 기준으로 韓國측 배당 原油는 하루 2만4천배럴 정도로 우리나라 하루 원유

도입량(53만배럴)의 4.5%를 장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原油가격을 배럴당 평균 18달러로 기준할 때 연간 1억5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대체 및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表 - 3〉 마리브油田 현황

위	
매장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분 5억배럴 • 개발완료시 15억배럴수준까지 가능 • 천연가스매장량 : 5 조입방피트
생산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년 11월이후 15만~20만B/D • 90년이후 40만B/D
참여사 지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측 지분 : 24.5% • 미국측 지분 : 75.5%

◇ 수익분배조건

原油생산량에 대한 투자회사측과 北예멘 정부와의 수익분배조건을 살펴보면 하루 생산물량이 20만배럴 수준에 달하게 되면, 생산지분이 투자회사측에 55%, 北예멘 정부측에 45%로 나누어 지며, 하루 생산물량이 30만배럴 수준에 달하면 50대50의 비율로, 40만배럴 수준에 달하면 투자회사측이 45%를 갖고 北예멘정부가 55%를 갖는 계약조건으로 되어있다. 투자회사는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물량을 헌트, 엑스, 한국측 기업에 일정비율로 배분하게 된다.

아울러 투자회사측은 로얄티(일산 10만배럴 초과생산분에 대한 10%)와 옵션(생산량베이스 일일분, 기술훈련비, 상업생산개시비등) 및 투자회사 투자수익의 50%에 해당되는 세금을 北예멘정부에 납부하게 되어있다. 또한 투자회사는 연간 탐사비 및 개발비 20% 회수율과 운영비용 등을 감안한 투자회수비 명목으로 총생산물량중 30%를 회수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분배조건을 도식화하면 <표-4>와 같다.

◇ 한국측 투자기업의 추정수익

마리브油田에의 성공적인 투자진출로 관련기업의 수익성향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기업의 수익규모를 산출하는데에 다음과 같은 회계절차가 준용된다.

첫째,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된 투자금액은 비화폐성 항목으로 분류되어 매결산기말 원화금액으로 환산하여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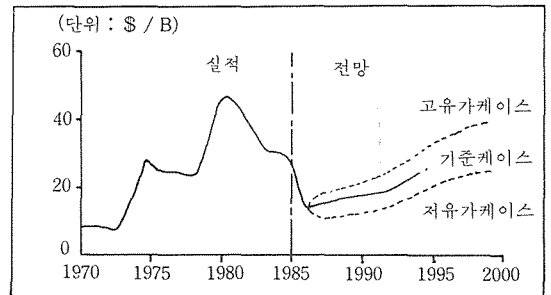
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환평가손실의 우려가 없으며, 둘째, 자원개발계약서 상에 구분되는 투자회수분은 투자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형태를 취하며 잔여분인 투자수익만 자원개발수익 명목으로 영입의 수익으로 계상되게 된다.

그러나 韓國측 투자회사가 北예멘정부에 한국측 투자수익에 대해 50%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후수익에 대해 韓國정부가 추가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없어 추정수익규모가 유동적이라 하겠다.

韓國정부의 추가과세여부를 제외한 韓國측 투자이익의 규모는 생산물량과 유가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루 생산물량이 20만배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88년과 89년 중에는 油價수준을 18달러로 예상하였을 때 한국측 투자이익은 57.6백만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40만배럴을 생산하는 90년에 유가를 20달러로 예

<그림 - 1> 세계 油價전망(1970~2000)



<자료> 美國 에너지정보국(EIA), 에너지전망보고서(1987. 4)

<表 - 4> 油田수익 분배조건

유 전 수 익		산 출 근 거	생 산 지 분(단위: %)		
			20만B/D	30만B/D	40만B/D
투자회사	투자회수분	총생산량×30%	55	50	45
	투 자 이 익	(총생산량-투자회수분-로열티)×투자회사 생산지분-세금			
北 예 멘 정 부	생 산 지 분	(총생산량-투자회수분-로열티)×北예멘정부 생산지분	45	50	55
	로얄티수입	일산 10만배럴을 초과하는 생산물량의 10%			
	세 금	투자회사측 세전투자수익×50%			

〈表 - 5〉 연간 투자이익 전망

(단위 : 백만달러)

	연간생산량	투자회사배럴당세후순이익		한국측투자이익				
		기준유가	세후순이익	유공 (15.93%)	삼환기업 (3.67%)	현대종합상사 (2.45%)	석유개발공사 (2.45%)	합계 (24.5%)
1988~1989년	7,300만배럴 (20만B/D×365일)	18달러	3.22	37.4	8.6	5.8	5.8	57.6
1990년	14,600만배럴 (40만B/D×365일)	20달러	2.81	65.3	15.0	10.1	10.1	100.5

상하였을 때, 한국측 투자이익은 총 100.5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 참여기업의 개별회사수익은 각각의 투자지분에 의해 결정되는데, 88년과 89년에 油公은 연간 37.4백만달러, 삼환기업은 8.6백만달러, 현대종합상사와 석유개발공사는 각각 5.8백만달러에 달하는 자원개발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原油도입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투자회수분까지

포함되어 도입되기 때문에 현금유입량은 투자수익에 해당되는 분을 크게 초과하여 하루 생산물량이 20만배럴의 경우 투자수익의 2.7배, 40만배럴인 경우 3.1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회사의 유동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의 생산추세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 회수가 90년대 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어 90년대 초반이후에는 투자수익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간대우증권

— 마리브 油田개발사업 관련日誌 —

- 84년 1월 26일 4개사가 북예멘의 마리브광구 유전개발에 공동 참여키로 최종합의, 이에 따라 당시 북예멘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마리브광구의 탐사개발권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운영권자 美國의 헛트사와 본격적인 협상개시
- 84년 1월 31일, 油公과의 협상으로 가계약에 합의한 상태에서 헛트사는 동 광구의 1차 탐사시추공 시추개시.
- 84년 2월 23일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라,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북예멘의 석유개발참여권을 다루기 위해 열린 정부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북예멘을 해외자원개발 투자대상국으로 승인.
- 84년 2월 29일, 유공이 한국측 참여 4개사의 대표로 헛트사와 참여계약 정식 체결, 韓國측 전체 지분으로 24.5% 획득.
- 84년 3월28일 動力資源部로부터 정식 해외자원개발사업허가 득.
- 84년 7월, 마리브광구에서 첫번째로 시추한 탐사정인 알리프정에서 석유발견에 성공, 생산성 시험결과 하루 약 7천8백배럴의 원유 분출.

- 85년 8월 20일, 한국측과 북예멘 양국간에 대사급의교 관계 수립.
- 85년 11월 14일, 알리프유전이 상업적 규모의 유전임을 북예멘정부가 공식 확인.
- 86년 4월, 북예멘 국내에 석유제품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알리프지역에 착공한 하루 1만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이 韓國 공동참여사인 三煥, 現代에 의해 완공.
- 86년 11월, 생산시설 및 수출송유관 건설등 본격적 개발작업 착수.
- 87년 10월말, 생산·수출시설 완공.
- 87년 11월 17일, 시험생산 시작.
- 87년 12월 9일, 현지에서 북예멘의 살레대통령과 참여업체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송유관 공식 준공식 거행.
- 87년 12월 중순, 본격적인 생산시작.
- 88년 1월 20일, 87년 12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생산된 물량에 대하여 한국측 지분에 해당하는 몫으로 35만배럴의 원유가 국내에 첫 도입, 울산항 입항.